



부록
토론 요약문
참가자 프로필

2011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

2011년 11월 30일~12월 3일 제주, 대한민국

박성용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은 제주도를 소개하며 유·무형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고(寶庫)라고 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번 회의는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의 기능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가 향후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 프로젝트의 발전과 역내 협력 관계 수립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센터 이사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는 귀빈들에게 환영의 말을 전하며 제주도의 독특한 언어와 문화를 강조했다. 또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을 비롯하여 제주도가 자랑하는 유산들을 특별히 언급했다. 임 교수는 이번 회의가 유익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는 말과 함께 환영사를 마쳤다.



제1부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이행과 국제협력

제1부는 인디애나대학교 명예교수인 로저 자넬리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협약 상의 보호조치 이행'을 주제로 한 노리코 아이카와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교수의 발표문과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센터의 협력 활동 방법론'을 고찰한 센터 박성용 정책사업본부장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협약 상의 보호조치 이행

박성용 본부장은 아프리카의 등재신청 참여가 낮은 원인이 무엇인지 질문하였고, 아이카와 교수는 상당수의 국가들이 신청서를 준비할 역량이 부족하며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디 라투나부아부아 피지 교육국가유산문화예술청소년체육부 중요문화개발부장(이하 문화개발부장)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며 긴급보호목록 신청서를 심사할 때 겪은 경험을 소개했다.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에 따르면 제출서류들은 대체로 공동체 참여를 증명하는 자료를 포함하지 않았거나 유산 종목을 정확히 표현하는 사진이 부족했다. 사무국은 필수 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서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반송시킨다. 아프리카의 경우,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유산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매우 미흡했다.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은 역량 구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사하피디아 대표(이하 대표)는 걸작 목록은 탁월한 가치(outstanding value)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은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각 당사국이 제출한 신청서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선택된 종목이 대표성을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보호 모범사례에 대해서도 아이카와 교수는 등재신청서 관련 결정은 개별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호 모범사례와 관련하여 8가지 프로그램이 현재 마련되어 있으며, 모범사례로 등재된 프로젝트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센터의 협력 사업 방법론 고찰

아이카와 교수는 센터의 목표가 이사회에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라면 중장기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센터의 목표는 그 기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는 설립목표에 기반을 둔 협력 프로젝트의 구축을 희망하며, 정보제공과 네트워킹이라는 일차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시스템과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마레쉬와르 갈라 교수는 등재신청 과정에서 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정보의 보급과 역내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협약의 틀 내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한·중·일 3개국에 설립된 센터들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센터는 정보제공과 네트워킹에 역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며, 단순히 문서 배포나 관련 정보의 웹사이트 게시에 그치지 않고 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 역량의 강화라는 주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관련 기관, 전문가, 단체, 공동체 사이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회원국들이 무형문화유산 보호 문제를 토론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응우옌 김 텅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무형유산과장(이하 과장)은 과거 베트남 당국과 센터가 공동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들 가운데 일부를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리고 센터가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계속 그와 같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베트남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이며, 모범사례를 제시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은 응우옌 과장에게 베트남이 빠르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과 역내 다른 국가들과 자국의 경험을 공유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했다. 응우옌 과장은 관심 있는 참가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송부하겠다고 전했다.



제2부

정보 시스템 구축: 지정, 기록, 아카이브

제2부는 국제인클루시브박물관연구소 아마레스와르 갈라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헤수스 페랄타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 자문관이 '무형문화유산 정보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매개변수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조앤 오르 MGS 대표가 자국의 사례를 예로 들어'정보 구축을 위한 확인 및 기록화 지원'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즈 구축 및 관리에 대한 함한희 전북대 문화인류학과 교수의 발표와 박필호 뉴욕주 변호사의 '무형문화유산 연행자들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가우라 만차차티타 디푸라의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시작되었다.

정보 시스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정보 생산과 수집

갈라 교수는 페랄타 자문관의 발표를 통해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상황을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며, 센터의 대표적인 기능은 정보공유를 통해 이러한 과정들을 소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시작에 앞서 갈라 교수는 목록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소니 윌리엄스 유네스코북아일랜드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은 페랄타 자문관에게 후드후드를 포함하여 걸작목록 등재 심사에 제출하기 위해 선택되었던 서사 시들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물었다. 지금도 후드후드가 불리고 있다는 내용을 듣자 윌리엄스 사무총장은 북 아일랜드에서는 그러한 성가(scared chants)가 맥락과 상관 없이 불리고 관광용으로 시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후드후드 전승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아이카와 교수의 질문에 대해 페랄타 자문관은 후드후드는 전통적으로 네 가지 행사에서 연행되고 이를 통해 주입식으로 전수되었었는데, 현재는 아이들에게 직접 전수하고 있으며, 전통적 전승 방식은 사라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주로 여성들이 노래를 했지만, 이제는 남녀구분 없이 노래를 하고 전통 종교들이 다른 종교로 대체되면서 후드후드의 종교적 의미는 퇴색하여 연행자들은 종교적 의미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하였다.

페랄타 자문관은 8년 간의 실패 끝에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사회적 상황에 맞게 방식을 바꿔 후드후드 부르기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노래의 보호 및 전승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런 결과로 작년도 대상은 후드후드 기예 보유자인 9살 소녀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갈라 교수는 저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전승자는 유산 보호를 위한 필수 요소이며 심지어 9살짜리 소녀도 전승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자넬리 교수는 노래와 전통종교의 연관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종교와 노래를 결합시킬 프로젝트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페랄타 자문관에 따르면 이푸가오족 관련 인류학적 연구들은 문화적 변화에 주목했는데, 일부 종교는 회생 불능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랄타 자문관은 이푸가오 전사들의 의식을 재현하려고 노력했던 과거 경험을 소개했다. 이푸가오 전사들은 죽음에 맞선다는 의미로 방패와 창을 팔, 다리, 머리에 두르고 의식을 치렀으며, 경외와 공포를 자아내는 이상 정물들을 두른 채 별판을 달렸다. 페랄타 자문관과 NCCA의 노력은 많은 불만을 야기했다. 그러나 흡사한 형태의 의식이 별판에서 쥐를 몰아내기 위해 거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페랄타 자문관과 NCCA는 그러한 맥락에서 주류 가톨릭교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의식을 재현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정보 구축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지정 및 기록화 지원

박성용 본부장은 웹 통합(web integration)의 중요성을 지적한 뒤 오르 대표에게 컴퓨터에 취약한 노인층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겪는 어려움 등 온라인 시스템 구축 시 직면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오르 대표는 '스코틀랜드 전쟁박물관'이라는 사용자 제작 콘텐츠 사이트의 사례를 들며 웹을 통한 참여는 전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동체 내 기관들이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추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르 대표는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고 일부 전통 보유자들을 누락시킬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하지만, 공동체 내 기관을 통한 참여는 세대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어떤 일이든 항상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이라고 말하며 교육과 공동체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사하피디아 대표는 온라인 목록의 콘텐츠를 카테고리화할 수 있는지 질문했다. 또한 위키 기반의 콘텐츠를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질문을 했다. 오르 대표는 일종의 모델, 즉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제시된 기

준에 근거한 목록 구축 방식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녀는 역량의 한계로 인해 콘텐츠 조정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일반인 차원에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콘텐츠의 진정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는 인식제고라는 목표 하에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한희 교수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기관 역시 일반인으로부터 무형문화유산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 교수는 전통(tradition)과 민속(folklo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서양인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관해 물었다. 덧붙여 일반인들이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이에 오르 대표는 살아있는 문화(living culture)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소개와 더불어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2단계의 설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르 대표는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이해가 쉽게 이루어진 까닭은 스코틀랜드 각 공동체에 깊숙이 뿌리내린 문화 덕분이라고 밝혔다.

함 교수는 자신의 소속 기관 역시 위키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비용, 관련 기술자 수 및 기술적인 측면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오르 대표에 따르면 MGS 프로젝트는 세 명의 정규 직원이 수행하는 대학의 연구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다. 소프트웨어는 무료 오픈소스였다. 해당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직원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콘텐츠를 조정하기도 했지만 주로 공동체 지원 업무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이 프로젝트의 관리는 MGS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정 담당 직원 한 명과 이 프로젝트의 확대 방안을 연구하는 또 다른 직원 한명이 있다. MGS는 또한 위키 계열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오르 대표는 장기적으로 '스코틀랜드 전쟁박물관과 같은 사이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매우 빠듯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갈라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이라는 말은 공동체의 언어로 번역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이 대다수 공동체에게 생소한 개념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오르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두 번째 주제 토론을 마무리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아카이브즈 구축 및 관리

오르 대표는 이치피디아와 아카이브즈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양방향 링크가 존재하는지의 물었다. 이에 대해 함 교수는 양방향 링크는 존재하나 정보는 대체로 이치피

디아 사이트에 입력된 뒤 아카이브즈로 옮겨 간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카이브즈에 저장된 자료를 이치피디아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은 피지의 많은 섬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인터넷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으며, 목록이 아카이브 구축에 도움은 되지만 정보가 고착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목록이 관습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함 교수는 한국은 오래 전부터 정보를 수집해 왔으며 심지어 특별 연구소까지 설립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유네스코가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이후 한국 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유네스코 협약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문화재청은 함 교수 팀에게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 수집방법에 대한 연구를 요청했고, 그 결과 두 가지 방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은 모든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관습이 어떻게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이러한 방식의 기록은 공동체들이 취약한 무형문화유산을 활성화하도록 장려한다고 언급하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이치피디아는 정보수집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작업으로 그 과정에서 일부 소멸된 무형문화유산 정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연구팀은 주로 공동체 내에 현재 살아 있는 유산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어느 정도 발전 궤도에 오르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협약의 방침에 따라 해당 유산의 생존력을 바탕으로 구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리드 자바이드 파키스탄 국립민속전통유산연구소 소장(이하 소장)은 연구팀의 구성과 팀 관리 방법에 대해 질문했다. 함 교수는 작년에는 문화인류학과 대학원생 10명, 무형문화유산 전문가, 공동체 구성원이 연구에 참가했다고 답했다. 올해는 한국의 6개 대학 출신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포함되었다고 답했다.

사비라 솔통젤디에바 유네스코키르기스스탄위원회 문화담당관(이하 문화담당관)은 이치피디아에 등록된 종목의 수와 이들의 한국 내 분포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함 교수는 10,000건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작년에 5,000건, 올해 9,000건을 등록했다고 답했다. 등록된 유산종목은 한국의 8개 도(道) 중 6개 도를 근거지로 하며, 내년에는 나머지 2개 도를 대상으로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셀 우페제노바 유네스코카자흐스탄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은 정보의 편집과 추가 권한은 누구에게 있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질문했다. 함 교수는 이 시스템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소수의 인원에게만 개방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팀은 보다 큰 공동체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검토위원회가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티에 대표는 사이트에 등록된 유산종목의 수와 누가 그 정보를 기록했는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사이트 방문자 수와 그들의 정보이용 행태도 확인 가능한지 물었다. 함 교수는 방문자 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있으나 정보이용 행태까지 추적할 방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아이카와 교수는 위키의 정책이 매우 느슨한 것을 지적하며 저작권 문제를 언급했다. 함 교수는 그녀의 연구팀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정보는 상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다.

응우옌 과장은 이 시스템이 베트남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업에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금전적 비용과 시스템 설립에 필요한 인원에 대해 물었다. 함 교수는 컴퓨터 전문가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생들로 이루어져있다고 답했다. 문화 재정이 프로젝트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용 본부장은 이 시스템은 시범 프로젝트이며 목록이라기보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많은 면에서 요건을 충족하고는 있지만 목록구축 과정의 전 단계에 불과하며 연구팀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라 교수는 이번 토론에서 제기된 두 가지 주요 아이디어를 신뢰성과 저작권이라고 지적했다. 위키피디아는 유효한 정보원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심지어 학부 수준에도 못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는 문화 담론에 대한 의식을 일깨우기 때문에 인식제고에 있어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고 갈라 교수는 지적했다. 또한 제한적 지식의 제공이라는 심각한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무형문화유산 실연자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페달타 자문관은 전통유산이란 수십 년 전에 형성된 것이고 그 세월을 고려할 때 유산은 공공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사전동의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필호 변호사는 모든 것이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면 소멸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는 정책의 문제로 정책을 통해 유산보존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갈라 교수는 '원주민 권리 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의 초안을 작성하고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관습법에 명

시된 원주민의 유산보유권이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슈라며 볼리비아, 바누아투,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들을 추가로 제시했다.

갈라 교수는 응우옌 과장에게 문화유산법 개정 후 베트남은 지적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응우옌 과장은 저작권 문제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공연 기록물의 경우 저작권이 시청각 기록을 담당한 기록자에게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이어 저작권 공유와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기록물 소유자의 권리에 적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박필호 변호사는 이 문제는 현재 법 체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저작권은 연행자가 아닌 기록자에게 있다. 따라서 연행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 혜택의 공유를 명시하는 등 사전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연행자에게 명확하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박성용 본부장은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지적재산권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센터의 기능 중 하나가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와 창작자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센터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정보 관리와 전문기관의 지식재산을 다루는 공동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이카와 교수는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는 WIPO에 넘기고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그 이유는 무형문화유산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지적재산권 문제는 1973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해결책이 제시된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등재신청서뿐만 아니라 협약 당사국이 6년마다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도 유산 기록 과정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재신청서와 정기보고서는 보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분명히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함한희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자금지원기관과 기록자 사이에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있다. 자금지원기관이 모든 권리와 혜택을 취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박필호 변호사는 이와 같은 문제는 자금 지원자와 수취자 사이의 동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공정한 사용 또는 저작권 영역에서 다를 성격의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윌리엄스 사무총장은 태평양지역의 6개국이 WIPO와 기타 지역기관, 그리고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독특한 전통지식 관련 법을 제정하는 와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2~3년 전부터 태평양지역에서는 지적재산권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어 왔으며 쿡 아일랜드 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전통지식 관련 법의 첫 번째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에 따르면 피지는 모든 국가에 적용 가능한 모델법

(model law)을 바탕으로 목록작성을 시작했다. 모델법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앞서 채택된 것으로 피지를 비롯한 일부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모델법을 목록작성을 위한 기본 체계로 삼았다. 피지는 목록작성을 시작하면서 공동체와 그 소유물을 존중하라는 모델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체 소유권을 기록하였다. 피지의 국민들은 대부분 작은 공동체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기 때문에 원소유주에게 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 기록자들은 주로 장식용 무늬와 상징물에 집중하여 그 유형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소유자들을 확인했다. 지금까지의 기본 작업 덕분에 법안 제출이 목전에 다다랐다.

우폐제노바 사무총장은 카자흐스탄 의회가 독일의 한 기업가가 보유한 카자흐스탄 전통음료 제조 특허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했다. 그녀는 박필호 변호사에게 전통요리에 대한 특허 보유가 적법한 것인지 프랑스 요리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사실과 관련하여 의견을 듣고자 했다. 박필호 변호사는 전통음료 제조 특허 문제는 법정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허 취득을 위해 제품은 새롭거나 참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 기준이 모호하고 각국의 시스템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 취득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이카와 교수는 프랑스 요리가 목록에 등재된 것은 요리법이 아닌 사회적 관습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2005년에는 요리법에 치중하는 바람에 등재신청이 거부되었지만, 2010년 재신청 과정에서 사회적 관습 속성이 부각되면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보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활용

갈라 교수는 인도네시아는 인식제고를 위한 많은 혁신적인 방법과 체계화된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만화책을 출판하여 배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 역시 만화책을 활용하여 보호활동을 펼쳤는데, 인티폴 및 고등학교들과 협력하여 보호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만화책을 읽은 학생들이 지역사회 의 경찰이 되어 문화재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갈라 교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모든 상황을 다 일일이 관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체계화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채택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단순한 조약이 아니며, 지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지금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협력과 배경지식을 담고 있는 협약이기에 협약에 관한 기본 문서를 일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르 대표는 요점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기본에 충실하라는 접근법을 알려주어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박성용 본부장 역시 이 발표를 통해 많은 참가자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다른 국가의 상황에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활동 사례들을 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본부장은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의 발표를 통해 개인, 공동체는 물론 국가와 지역에 이르는 모든 무형문화유산 보호 주체들이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은 모범사례가 아닌 문제사례를 제시하는 접근법이 매우 좋았다고 말하며 몇 가지 사례를 더 요청했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2009년에 이에 대해 강연을 했으며 문제사례 중 하나는 바로 배타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사례는 공동체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정부 관료가 공동체 유산에 대해 전권을 휘두르는 것과 같은 하향식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많은 등재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고 되돌아오는 이유는 공동체 참여를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디지털 데이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불량사례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문화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가 어느 날 시스템 붕괴로 모두 소실되어 수년 간의 연구 기록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불상사가 발생했으며 데이터 백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갈라 교수는 등재신청서가 접수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이 말했듯이 협약 이행 방안이나 제반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신청서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가장 흔한 문제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당사국들이 협약 이행 역량을 갖추기 때까지 등재신청서 제출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티오피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비단 에티오피아 한 나라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타키 문화담당관은 불완전한 등재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인의 경험을 전했다. 아울러 접수 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그 원인을 알고 다시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 소득이라고 말했다.



제3부

무형문화유산 정보 공유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제3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과 박상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정보 구축에 있어 NGO의 참여와 협력에 대한 수다 고팔라크리슈난 인도 사하피디아 대표의 발표와 ‘소지역·지역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간 협력 강화’를 다룬 아이카와 노리코 유네스코아프리아사무소 문화담당관의 발표에 이어 앙투완 고티에 캐나다 퀘벡주 무형유산위원회 대표가 ‘캐나다의 무형유산: 정치적 맥락, 보호조치, 국제 협력’을 발표하였으며 이어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인도 NGO의 정보 구축 참여와 협력

함한희 교수는 한국의 경우 NGO 활동이 제한적이며, 정부 주도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고팔라크리슈난 대표에게 마르기(Margi)라는 인도의 NGO가 어떻게 인도의 첫 번째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유산의 신청서를 마련하고 제출하는 기관으로 지목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질문했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파리에서 만난 아이카와 교수가 그녀에게 걸작 선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 주면서 신청서 준비를 권했다고 말했다. 두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친 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신청서를 서둘러 정리하여 신청절차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인도 문화부에 제출했다. 이렇게 하여 마르기가 신청서 준비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에 따르면, 이제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신청서를 비롯한 모든 제출서류를 정부가 취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NGO에게 많은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타키 문화담당관은 인도의 학교들이 사하피디아에 저장된 정보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최근 교육부에게 요청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6,500개의 중·고등학교가 콘텐츠 업그레이드와 생성을 위해 사하피디아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학생과 교사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티에 대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NGO가 늘어나면서 분산화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는 영토가 매우 큰 국가이므로 중앙기관인 문화부가 현장연구를 모두 지휘할 수 없으며,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협력체계가 인도에 수립되었는지 질문했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에 따르면 국가 차원의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의 부서가 존재하지만, 각 주를 관장하는 주 정부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소와 산하 부서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 위치한 수많은 NGO 역시 위의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NGO가 거미줄처럼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박성용 본부장은 사하피디아가 보여준 놀라운 기능에 찬사를 보내며 향후 센터의 활동에 있어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모가 나날이 커지면서 NGO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주제로 자리잡았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사국들이 NGO와 공동체가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고팔라크리슈난 대표에게 인력과 금전 자원의 소모 측면에서 볼 때 사하피디아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개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플랫폼, 시스템 운영상의 어려움, 방대한 콘텐츠를 꼽았다. 그러나 사하피디아는 운 좋게도 다른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박 본부장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 없었지만 자금 압박의 문제가 크다고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덧붙였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두 가지 이슈를 제기했다. 첫째, 고팔라크리슈난 대표가 내린 NGO의 정의와 달리, 유네스코가 내린 NGO의 정의에 따르면 NGO는 일정 수준의 국제적 역량, 법인격 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수천 개의 공동체 기반 NGO가 존재하지만, 유네스코의 기준에 따른다면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팔라크리슈난 대표에게 인도의 상황에 대해 보다 상세히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둘째, 대본작가나 감독의 경우가 아니라면 등재신청을 위한 영상물 제작은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고팔라크리슈난 대표의 의견을 물었다. 고팔라크리슈난 대표는 인도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NGO가 존재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 답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반드시 비영리단체만 NGO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단체들은 또한 등록된 협회로서 자격을 가져야 한다. 매우 다양한 분야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영상물 제작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작업이 매우 까다롭다는 의견에 동의 하면서 운이 좋게도 영상물 전문 제작자를 섭외하여 비교적 순조롭게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상미 교수는 유네스코 기준의 맥락에서 NGO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참

석자가 있는지 좌중에게 의사를 물었다. 페달타 자문관은 NGO는 공동체라고 볼 수 있지만 공동체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는 기준에 따라 상황에 맞게 NGO를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카와 교수는 NGO에 대한 유네스코의 인식에 대해 설명했다. 공식 인가를 받은 소수의 국제 NGO가 유네스코와 다양한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ICOM과 같은 NGO는 유네스코의 후원으로 설립된 것이다. 선언문의 경우, 유네스코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러한 국제 NGO들이 심사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9조에는 유네스코의 정신에 따라 NGO가 심사를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운영지침이 작성될 당시, 인도는 NGO만이 협약 문구에 명시된 것에 이의를 제기했고, NGO가 없거나 소수인 국가들에게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도는 심사 자격이 있는 전문 기관과 개별 전문가들을 포함하고자 했다. 그 결과, 유네스코는 NGO란 모든 유형의 NGO, 기관 및 단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

지역·소지역 차원에서의 무형문화유산 이해당사자 간 협력 강화

고티에 대표는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이 제시한 인간문화재제도(LHTS)를 언급하며 이것을 채택한 국가들이 있는지 물었다. 고티에 대표는 LHTS가 캐나다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우 생소하다고 말했다. 박상미 교수는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박성용 본부장은 LHTS로 인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은 이미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일찍부터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그후 1990년대에 이르러 유네스코의 활동 범위 안에서 LHTS를 확대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당시 이 제안은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유형 및 부동산 문화재를 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LHTS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당사국들에게 이 제도를 전파하여 수용하도록 했다. LHTS는 제도적 차원의 보호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이념에 따른 당사국들의 정책과 법안이 늘어난 것도 LHTS 확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LHTS와 유사하지만 규모는 보다 작은 인도네시아의 마에스트로 프로그램(Maestro Programme)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는 무형문화유산 보유자와 연행자를 공식 인정하고 인증서와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

아이카와 교수는 LHTS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함한희 교수는 한국에서는 먼저 무형문화재 지정이 이루어진 후 지정된 보유자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무형문화유산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LHTS는 유네스코의 긴급보호목록과 유사하다고 언급하며 1960년대 한국의 무형문화재 지정 절차에 대해 소개했다. 당시 급격한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한국의 민속을 포함한 전통 무형문화유산과 생활양식이 급속히 쇠퇴하고 있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연극과 공연 등 특정 문화 항목을 보호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연극이나 노래의 맥을 이어 공연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했다. 따라서 이러한 공연들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인간문화재로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은 후대에 본인이 보유한 지식을 전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함 교수는 이것이 한국의 무형문화재 지정제도의 기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은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에게 감사를 표하며 소지역,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활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흥미롭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문가 네트워크 회의의 개최는 다차원 협력관계의 표징이며,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본 주제인 LHTS와 관련하여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은 센터가 역내 다양한 인간문화재 현황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많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LHTS 관련 제도를 본보기로 삼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박성용 본부장은 센터가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정책과 법 체계를 파악하는 조사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은 4년 마다 열리는 태평양 예술 축제(Pacific Arts Festival)를 포함하여 소지역 차원에서 앞으로 열리게 될 축제들에 관해 언급했다. 이어 이들 축제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관련 정보를 축제에 참가하는 예술가, 창작자, 제작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센터가 이들 축제를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물었다. 박성용 본부장은 축제 관련 정보를 제공해준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센터가 축제 개최 전과 축제 기간 동안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축제 관계자와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추가 정보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축제와 관련하여 협력할 수 있는 사안들을 논의해보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캐나다의 무형유산—정치적 맥락, 보호 조치, 국제 협력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왜 목록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목록을 만드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본질적으로 소유물은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만차차리타디푸라 차장은 돈을 예로 들어 비유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여기저기 조금씩 두다보면 몇 년 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한 채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유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결국 그 유산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카와 교수는 고틀에 대표의 발표를 통해 경제발전과 무형문화유산의 관계라는 중요한 측면에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회의 참석자들에게 유네스코의 중기 프로그램은 다카하시 문화담당관이 언급했듯이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새천년개발목표에는 문화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유엔은 여러 서면 결의를 통해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네스코의 일순위 목표는 발전이다. 세계유산과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모든 문화적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발전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아이카와 교수는 모든 참석자가 이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상미 교수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문화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고 언급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 새로운 관점,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고틀에 대표와 오르 대표를 아태지역 회의에 초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어제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 목적은 정보교류에 있어 국제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협약 당사국들이 다른 지역에서 관련 이슈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윌리엄스 사무총장은 쿡 아일랜드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목록작성이 오랫동안 주요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면서 유대인의 역사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사면 되지만, 쿡 아일랜드의 역사는 알고 싶어도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어느 노인의 말을 인용했다.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쿡 아일랜드는 단일문화에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어 무형문화유산이 소실될 위험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 경제 상황의 악화로 전통적인 배 건조 및 항해 방법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며, 목록을 작성해야 하는 이유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강조했다.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은 먼저 고틀에 대표와 오르 대표의 소속 기관들이

공식적인 비정부기관으로 인가 받은 것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녀는 정부 관점에서 통계와 목록작성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다민족 공동체 내 소수민족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노력에 대해 고티에 대표와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다. 이어 목록은 영구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공식 인정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고티에 대표는 목록작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목록을 활용할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캐나다에 두 부류의 시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여 설명했다. 캐나다는 특권을 누리는 원주민과 나머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소수민족을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부분 비정부단체의 소관으로 행해진다.

페랄타 자문관은 목록이란 단순히 유산의 이름을 짓거나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록에 유산의 실연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바구니 제조를 사례로 들었다. 한 개의 바구니를 없애면 그냥 바구니 한 개가 없어진 것이지만, 바구니 제조 과정을 없애거나 누락하면 앞으로 바구니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페랄타 자문관은 따라서 목록을 작성할 때 과정의 기록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티에 대표는 목록을 통한 과정의 전승은 바람직하나 목록 활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보를 위한 사이트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이트 제작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체토론: 아태지역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공동 의제 채택

전체 토론은 박성용 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서기는 아디 메레투이 투보우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이 담당했다. 라투나부아부아 문화개발부장은 3일간 개최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으며, 참가자들이 제출한 아태지역 협력을 위한 제안사항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이 제출한 제안사항의 발표에 앞서 네트워크 회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했다.

다음은 회의 참석자들이 센터의 향후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한 제안사항들이다.

1. 제도적 차원에서 센터의 역할

제1회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에 대해 센터 협력기관들과 의견을 교환한다.

2. 해당 공동체, 단체, 개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공개 행사와 회의를 개최한다.

중국, 일본 및 이란에 있는 다른 카테고리 2기구들과 관련하여 센터의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기능 및 우선순위 활동 측면에서 기관 간의 차이점을 간략히 명시하여 문서로 제공한다. 또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한다.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공동 문화유산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의 관심을 바탕으로 네트워크와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소지역 차원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3. 정보 및 지식의 교류를 위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아태지역 및 기타 지역의 비정부단체, 협약 이행 당사국 및 협약 비준 예정국 등 전략적 협력 주체들과 국제적 차원에서 네트워킹 및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정보 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각국 및 역내 정보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국가 정보, 문화적 특성과 관습, 보호 조치, 시청각 자료, 인터뷰 및 기록과 관련된 기타 자료 등을 저장한다.

4.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자료의 효과적 관리, 무형문화유산 현황조사 및 기록작업 지원, 기록자료의 보존과 디지털화, 메타데이터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체계를 수립한다.

협약 당사국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전문가, 아태지역 공동체 기반 기관, 단체, 개인 및 네트워크 지도를 작성한다.

5. 무형문화유산의 보급을 위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 및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한다. 목록, 등재신청서 및 정보자료를 위해 제작된 기록물에 참여한 무형문화유산 연행자와 창작자의 지적재산권 보장을 추진한다.

무형문화유산 그리고/또는 전통지식 및 문화표현물 보호법 사례를 게시한 WIPO나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기관 사이트에 센터의 웹사이트를 연동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솔통젤디에바 문화담당관은 센터가 다른 카테고리 2기구들도 회의, 학회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많은 관계자들을 초청했지만, 시간이 허락지 않아 일부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갈라 교수는 발리에서 개최된 6차 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활용된 기술을 언급하며 센터 회의 영상을 라이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여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회의에서 제시된 정보를 전달하자고 제안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실시간 영상 전송은 가능하나 비용이 문제라고 말했다. 갈라 교수는 일부 국가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한국은 이미 충분히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으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용 본부장은 이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고 비용 문제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회의를 종료하기에 앞서, 박성용 본부장은 이번 회의의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라투나부아부아 피지 문화개발부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모든 참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폐회를 선언하였다.